

5·18, 아시아 민주·인권운동 이끈다 ... '광주 정신' 전도사들

“5·18은 20년 민주화·인권의 귀감”

④ 네팔 국가인권위 마다브 귀탐씨

네팔 카트만두=이종형기자

“광주시민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작 다른 아시아 나라 사람들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배우느라 여념이 없는데 말이죠.”

12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만난 마다브 귀탐(Madhav Gautam·30·사진)씨는 5·18민주화운동

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에서 민주화와 국민 인권보호 등을 위해 의욕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매달 한 번씩 네팔 인권단체 간 모임을 주선해 5월 항쟁을 소개하는 등 광주의 5월을 알리는 '꽃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귀탐씨는 또 광주에서 배운 민주·인권교육과정과 정과 운영방식 등을 자신이 몸담고 있는 '네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고 험난한 히말라야를 오르내리는 강인한 세르파들처럼 네팔의 민중들도 그들이 봉착한 난관을 거뜰히 극복해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5월 항쟁을 접한 뒤 민주·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80년 광주의 정신이 널리 전파된다면 아시아 개도국의 민주화도 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golee@kwangju.co.kr

2006년 광주서 국제인턴 교육 받아 네팔 인권단체 연대 등 의욕적 활동

이 아시아 민주화에 끼친 영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가장 먼저 찬사를 쏟아냈다. 그는 “5월 항쟁을 일으킨 네팔 시민들이 말로 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을 가능케 한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 5·18 기념재단의 '국제인턴과정 프로그램'에 참가한 그는 광주에 4개월간 머무르면서 민주주의의 뿌리인 '민주', '인권', '평화'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당시 그는 5월 항쟁을 토대로 민주화를 이뤄낸 광주(한국)의 민주주의 과정과 의미, 인권운동 상황 등을 접한 뒤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민주주의 없이는 인권도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간 뒤 '네팔 국가인권위원회

있다. 그동안 인권위원회는 인권단체 간 교류나 연대 없이 운영돼 제 힘을 발휘하지 못했으나 귀탐씨의 노력 덕분에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단체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를 갖추어서 인권대변단체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주말마다 카트만두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 상황, 차별제도 철폐 등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네팔은 현재 절대왕정 시대를 마감하고 법치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과도기에 놓여있다.

귀탐씨는 “네팔은 민주·인권수준이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머지않아 한국의 민주주의를 잇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무거운 짐을 지고도 출

5·18묘지 외국인 밀려드는데

안내단말기는 수개월째 '먹통'

통역요원도 절대 부족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외국인 참배객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외국인 안내단말기가 수개월째 '먹통' 상태인데다 통역요원도 절대 부족해 5·18을 세계에 알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외국인 참배객은 2천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145명에 비해 77.3%(885명) 증가했다. 지난 2005년에는 849명도 불과했다.

특히 이번 달 들어 12일까지 505명이 다녀가는 등 외국인 참배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관리소에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안내팀장 1명 외에는 통역관이 없으며, 추모관 내 외국어 안내단말

기(20대)도 고장이 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돼 수개월째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 참배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가 형태로 만들어진 안내단말기는 추모관내 시설이나 전시물 앞에서 지정된 번호를 누르면 영어 등 4개국어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편의 시설이다. 이 단말기는 수개월 전 배터리가 바닥 방치돼 있다가, 최근 제품을 납품했던 서울의 한 업체에 맡겨져 충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소 관계자는 “지난달 초순 안내단말기의 배터리가 방전된 사실을 확인, 모두 납품 업체에 맡겼으나 일부 기기에서 결함이 발견돼 정비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금명간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



화순서 물놀이 고교생 익사

13일 오후 4시40분께 화순군 남면 장전리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고교생 신모(18)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신군이 수심 4m가 넘는 하천에서 수영하다 번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5월정신 계승 헌혈 5·18민주화운동 제29주년을 맞아 13일 광주시청사 1층에서 열린 '사람의 헌혈행사'에서 광주시 직원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무면허 뺑소니 40대 여공무원 '달미'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오도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미란 40대 여공무원이 경찰에 달미.

○무안경찰은 13일 읍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주모(여·48)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20분께 무안읍 성내리 편도 1차로에서 마주 오던 오도바이 운전자 김모(62)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

○경찰은 현장에 남은 차량 조각을 토대로 차종을 가려낸 뒤 사고지점 CCTV에 담긴 같은 차량 소유자를 파악해 주씨를 붙잡았는데, 경찰에서 주씨는 “결혼식에 다녀오던 중 잠시 한눈을 팔았다”며 뒤늦은 후회. /무안=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광주시 통계로 본 5·18

보상자 5,189명·참배객 783만명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은 모두 5천18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1990년 제정된 관련 보상법에 근거해 6차례 진행된 심사에서 모두 5천189명이 5·18과 관련해 피해를 본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 가운데 5·18 당시 사망한 사람이 155명, 행방불명된 사람이 76명, 부상당한 뒤 숨진 사람이 101명이다. 또 ▲부상 2천277명 ▲연행·구금 후 부상 1천88명 ▲연행·구금 1천383명 ▲

기타 62명 ▲재분류 47명 등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등급 제로 대상자를 제외하면 2천323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5천189명 중에는 한 사람이 재심사를 통해 다른 등급을 받은 경우가 더러 있어 실제 숫자는 이보다 조금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 따르면 1997년 5월 5·18 민주묘지가 개장한 이후 지난 12일까지 참배객은 ▲부상 2천277명 ▲연행·구금 후 부상 1천88명 ▲연행·구금 1천383명 ▲

민주화 과정 20~30대 1만3천명 실종

내전·정치혼란...빈곤 허덕이는 네팔 민중

네팔의 민주화는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동등 만큼이나 멀고도 험해 보인다. 국민들이 그 토록 바라던 민주주의의 염원은 이뤄지지만, 정치불안과 부정부패로 인해 민중들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네팔은 아직까지 통치의 기분이 되는 법규마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다.

광주일보에는 '네팔 국가인권위원회'의 마다브 귀탐(30)씨와 함께 네팔의 사회문제로 남아있는 청·장년

층 실종사건에 대해 살펴봤다. 네팔은 1990년대까지 매년 1만명이 넘는 청·장년들이 실종될 정도로 민주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

13일 오후 3시(현지시각) 카트만두의 타멜(Thamel)에 사는 에크라즈 반다리(Akraj bandari·54)씨의 집. 빨간색 벽돌로 만든 1층짜리 주택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아슬아슬했다. 집안엔 주전자와 찻시 등 살림도구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헌두고 전통의상을 입은 반다리

에서 실종된 청·장년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탓에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네팔은 2000년대 이전까지 한 해 평균 1만3천명이 실종됐다. 연령대는 대부분 20~30대 남성들로, 실종자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생채기를 남겼다.

이들은 대부분 군대(공산당 또는 정부군)와 경찰에 의해 강제로 징용되거나 체포됐다. 또 이들의 소재나 생사 여부 등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게 귀탐씨의 설명이다.

그는 “민주주의 수립 전 내전 등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강제로 끌려가 죽어갔다”며 “광주항쟁처럼 이들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팔 카트만두=이종형기자 golee@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Real estate listings and services advertisement.

이젠 전기요금 걱정 끝!! 태양광발전설치사업. Advertisement for solar power installation services.